

중국펀드, 이번엔 정말 달릴 거니?

통화긴축 완화될 올해는 기대할 만



정철진의 도전! 재테크

매일경제신문에서 10년간 재테크 전문기자로 활동하다 재테크 컨설팅 및 스토리텔링 사업가로 제2의 인생 시작. 저서로는 국내에서 80만 부 팔린 재테크 서적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를 비롯해 <투자, 음모를 읽어라> <주식투자, 이기려면 즐겨라> 등과 작전주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작전>이 있음. 현재 SBS CNBC '생방송 경제투데이' 앵커 및 SBS 라디오 러브FM에서 '정철진의 스마트경제'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작년 말 국내 펀드전문가와 신흥시장 담당 애널리스트 20여 명에게 설문을 돌렸다. 새해에 해외 주식형 펀드 딱 1개만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펀드를 추천할 것이냐는 내용이었다. 결과가 재미있었다. 만장일치로 나온 답변이 바로 '중국펀드'였다. 그랬다. 또 중국펀드다. 중국펀드는 2007년 이후 4년 넘게 최악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20%대 수익률을 보이며 잠시 반짝하기도 했으나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하락으로 떨어졌다. 2011년에는 25%라는 큰 폭의 손실로 국내 펀드투자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수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7년 10월 6,124포인트에서 2,200대까지 주저앉았고 홍콩지수는 2007년 11월 20,000선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말에는 9,000선대까지 추락했다. 그나마 인도펀드(-33%)보다는 괜찮았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국내 증시

전문가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유망 펀드 1호'에 중국펀드를 올려놓는다.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했던 한 전문가는 "저도 답답합니다"라고 운을 댄 뒤 "그런데요, 그래도 중국밖에 없어요"라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 이상 중국펀드 타령에 속지 않는 것이 현명할까? 아니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중국펀드를 믿어 봐야 할까?

결정에 앞서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펀드가 부진한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올해에는 해결될 수 있다면 그래도 중국펀드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과거처럼 13~15%대의 초고속성장은 아니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인 8~9%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시장-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은 금융 당국의 긴축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2010년 10월부터 지급준비율과 예대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공격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시중 유동성은 빠르게 축소됐고 증시는 추락을 거듭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긴축정책이 급선회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관측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연 6.5%까지 치솟았던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이제 4%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 연말 한 차례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한 금융 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상태다.

긴축정책과 환율 조정에 지친 핫머니 이탈도 호재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깜짝 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긴축정책을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경기부양책으로 바꾸는 식의 호들갑은 떨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중장기적 계획 하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펀드 옹호론자들은 이에 대해 “그래도 긴축은 멈췄고 경기 부양이 시작된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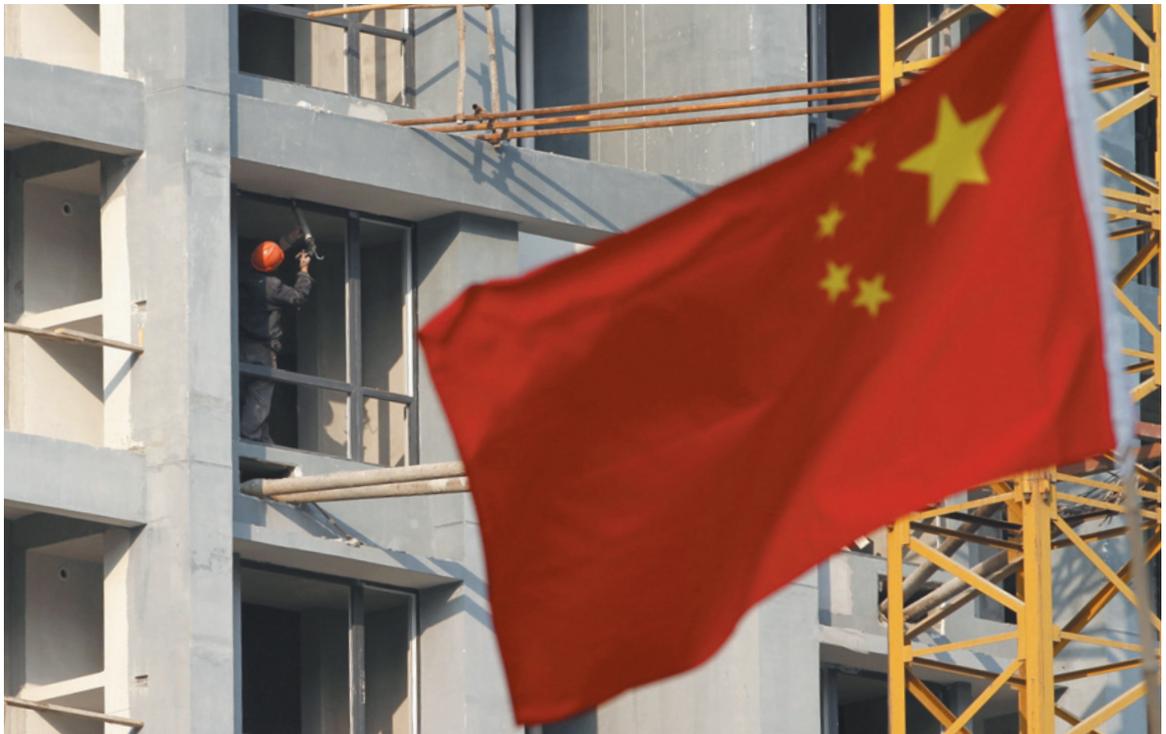
필자 역시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와 희망을 먹고 성장한다. 엄청난 경기부양 조치를 실제로 단행한 후에야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급등하는 것이 주가라는 얘기다.

특히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였던 핫머니들이 1년 넘도록 급속도로 빠져나갔다는 점도 호재다. 지속되는 긴축정책과 인위적인 환율 조정에 지치고 지친 핫머니들은 속속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을 누가 뭐래도 아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다.

국민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며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산당 입장에서는 핫머니를 견제하는 것이 더 큰 목표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노린 핫머니들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유입됐지만 싸움은 중국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제부터 중국 증시는 정부의 도움(?) 아래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올해 중국펀드를 처음으로 선택한 신규 투자자라면 계획한 투자액을 5등분해 1분기에 3번 정도 투자하고 나서 추세를 확인한 후 나머지 2번의 투자를 결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반면 기존 투자자라면 ‘물타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차피 올 3월이 되면 중국 증시, 엄밀히 말하면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예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발을 들여 놓고 상황을 봐 가며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하고 싶다. 



중국을 누가 뭐래도 아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다. 국민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기세력인 핫머니를 견제하는 것이 더 큰 목표다. 핫머니들과의 오랜 싸움이 중국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증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maginechina_ 연합뉴스